

OPINION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독자권익위원 칼럼

신연범

광주신용보증재단 송정지점장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수가 최근 두 달간 20만명이 넘게 줄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내 자영업자 수는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보다 적어졌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생계수단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거나 많아졌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소비를 줄이는 행태가 굳어지고, 여기에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장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설명한다. 또한 코로나만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희망을 갖던 자영업자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한계상황에 내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순이익이 전년 대비 13.3% 감소했다고 답했다.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비율은 72%, 증가했다는 응답은 28%였다. 2025년 순이익과 매출이 줄어든 거라고 대답한 비율은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43.6%는 향후 3년 내 폐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빚을 진 자영업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작년 말 개인사업자 336만명의 금융기관 대출 총액은 1123조원에 달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지자체의 역할

했다.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 사업자는 15만5000명으로 작년 대비 4만명 이상 늘었다. 연체 규모도 31조원으로 전년보다 7조원이 늘었다.

우리지역도 불황에서 예외는 아니다. 호남지역 대표 상권인 충장로에 문을 연 유명커피전문점 스타벅스 충장로점이 지난 2022년 폐점한데 이어 아이스크림전문점 베스킨라빈스 마저 떨어지는 매출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달 폐업했다.

베스킨라빈스 광주황금점은 호남지역 1호 점포로 상징성이 높았지만 오랜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은 것이다. 이 곳 뿐만 아니라 CGV광주터미널점도 3월 말을 끝으로 문을 닫는다고 한다.

오랫동안 침체를 겪고 있는 광주 충장로와 금남로 상권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1.2%,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4.3%에 달한다. 특히 충장로 1·2·3가의 상가 공실률은 전체 점포 393개 중 영업점포 305개, 빈점포 88개로 22.4%다. 충장로 4·5가는 이보다 높은 약 30%에 달한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광주시가 충장로 상권회와 상가 건물주, 그리고 동구청과 함께 '상생 활성화를 위한 반값 임대료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협약에 따르면 충장로 건물주는 공실상가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최대 50% 인하된 가격에 공급하고 최소 2년간 운영을 보장한다고 한다. 광주시에서는 충장로 상권에서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다른 상권으로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

는데, 상가 반값 임대료 사업은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면서 예비 상인들의 문의가 많다고 한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인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사업도 역대 최대인 1700억원 규모로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소상공인 특별보증은 광주시와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을 비롯한 시중 7개 금융기관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로 무담보 대출을 지원한다.

협약시행을 위해 광주시와 은행권에서 122억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지역소상공인들에게 1700억원의 보증을 제공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한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소상공인 특별보증사업은 지난해보다 200억원 늘어난 규모지만 신청이 폭주해 상반기 예정된 1200억원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신규기업이 설립되거나 기존기업의 확대로 고용이 창출된다. 고용이 증가하면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이는 소비를 증가시켜 다시 지역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연구와 투자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지역 경제는 아직도 많이 힘들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 파격적으로 투자해 줘야 한다.

기고

송광민

영광군 부군수



철마는 달리고 싶다

산간 철도 건설계획은 경제성 부족과 기준도로 이용, 전라선 철도 우회 등 활용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해안 지역의 평택항 대산항, 군산항, 목포항 등 주요항만이 위치해 있고 물류수송이 주된 철도건설의 요인인 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비해 정책적으로 우선순위에 밀려왔다.

1899년부터 시작된 한국 철도의 기본틀 중 마지막으로 한반도 U자형 철도망 완성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그 마지막 구간인 목포~군산 구간이 서해안 철도에서 유일하게 110km가 단절구간(Missing link)으로 남아 있다.

이 시점에 지난 3월 18일 서해안 철도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전남도, 전북도, 목포시, 영광군, 함평군,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과 각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 '서해안 철도 건설 정책포럼'을 열고 서해안 남북 철도 축 완성을 도모했다하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서해안 철도는 단순한 교통인프라를 넘어, 산업과 물류, 관광이 융합된 서해안 경제벨트를 구축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 격차 완화를 통한 국가균형 발전을 촉진시키고, 철도를 통한 물류 이동 증가, 관광객

유입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한반도 U자형 국가 철도망으로 네트워크 효과 극대화 등 핵심 간선철도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특히 영광군은 서해안철도 연결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핵심 지역이다. 영

광군은 전남 서북부의 중심지로, 최근 대대전자자동차 산업단지를 비롯한 e-모빌리티 산업 등 미래형 산업 기반이 집중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또 햇빛발전력발전소와 더불어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거점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화물과 인력 이동에 대한 철도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다불어 백수해안도로, 불갑사, 칠산타워, 법성포 굴비거리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관광산업이 본격적으로 도약하는데 제약이 따르고 있다. 철도 연결은 곧 관광 인프라 확충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의 지름길이다.

이제는 2023년 국토교통부에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작한 만큼 하반기에 발표예정인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한반도 U자형 국가 철도망 완성을 위한 마지막 단절구간인 목포~군산 구간이 반드시 반영돼 고양에서 목포로, 부산으로 강릉으로 한국 철마가 국가 균형 발전을 싣고 힘차게 달리는 그날을 상상해 본다.

취재수첩

잃어버린 일상, 하루빨리 회복되길

임영진

사회교육부 차장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을 지나는 느낌이다.' 광주지역 한 변호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적국의 상황을 이 문장으로 표현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종결 후 보름이 지나도록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개탄하는 심정이 행간으로 읽힌다.

재판관 8명으로 구성된 헌재는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수시로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평의를 열고 있지만 선고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미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앞서 고 노무현 대통령은 변론 종결로부터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결정이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 판결도 변론 종결 이후 통상 2주 뒤 선고가 나온 전례와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예상은 빗나갔다.

헌재는 지난 24일 헌재수 국무총리의 탄핵 청구를 기각했고, 최재태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이어 3건의 탄핵 심판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날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공지는 없었다.

헌재는 지금도 선고 관련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기각 5·인용 1·각하 2)가 헌법재판관마다 갈리면서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국가적인 걱정과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헌재의 판단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이제 광장의 탄핵 찬반 촉구 시위는 일상이 돼 버렸다.

이러한 국가적인 대혼란과 갈등, 반목이 계속되면 우리의 앞날은 암흑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헌재는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조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독자투고

보이스피싱 알고 피해 막자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카드배송, 코인투자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유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2024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2만839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이는 신용카드 배송기사, 고객센터 등을 사칭하는 수법의 증가와 함께 60대 이상 여성 피해가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이중 카드배송 사칭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배송 예정임을 안내한 뒤 명의도용 피해를 언급하며 금융회사 고객센터(사고예방팀)를 사칭하는 전화번호로 조속히 연락할 것을 유도한다.

이후 고객센터 사칭범은 원격제어 앱 설치를 권유해 원격제어로 악성 앱을 설치하면 피해자가 어디에 전화를 걸더라도 사칭범에게만 연결되게 된다.

검사 사칭은 피해자에게 중대한 특급사건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하겠다고 협박한 뒤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예·적금을 해지해서 보내라고 강요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나 국번없이 118로 신고해야 한다.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누르지 않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예방을 철저히 해 안타까운 보이스피싱, 문자사기 등 피해를 당하지 않길 당부한다. 진병진 여수경찰서 대경도치안센터 경감

사설

지역 제조업체 '불황'... 지원책 서둘러야

광주지역 제조업체들이 체감하는 경기 전망이 여전히 암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BSI(Business Survey Index·기업경기실사지수)가 기준치(100)에 미치지 못하는 등 4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돌고 있는 것이다.

지난 1분기에 비해 BSI가 소폭 오르며 그나마 다행이다.

BSI는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말하며 기업가들로부터 향후 경기동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자수화해 주로 단기 경기예측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지수가 낮으면 경기악화 예상 기업이 경기 호전 예상 기업보다 많다는 말이며 100보다 높으면 경기호전 예상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139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2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BSI 전망치는 전 분기(84)보다 8p 상승한 92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 환율 상승 등으로 투자·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트럼프발 과도한 관세 부과 정책으로 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BSI가 소폭 상승했다는 것은 나름 긍정적인 지표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전히 기준치를 하회한다는 점에서 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불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역 BSI 전망치 추이는 지난해 2분기 101을 기록한 이래 4분기 연속(3분기 97, 4분기 94, 올해 1분기 84) 기준치 아래였다.

특히 기업의 가장 중요한 경영 지표인 매출액(85→94), 영업이익(78→83), 설비투자(90→94)의 경우 계절적 성수기에 따른 생산활동 본격 재개, 신차 출시 등에 힘입어 전 분기에 비해 지수가 다소 개선됐지만 기준치보다 낮은 것은 여전했다. 이 때문인지 매출 목표를 지난해 수준 또는 그 이하로 잡은 기업이 71.2%나 됐고 투자 목표를 지난해 수준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한 기업 또한 81.3%로 조사됐다.

그만큼 지역 기업들의 활동이 제약적이고 많이 위축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이 계속되는 불황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때다.

해남사랑상품권 지역경기 활성화 이끄네

해남군의 '해남사랑상품권'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추석과 설, 이벤트 기간(10%할인)을 제외하고 평상시 7%만 할인해 주던 해남사랑상품권 사용을 늘리기 위해 1~3월까지 3개월간 10% 집중할인 판매에 나서고 있어서다.

또 이번 할인 판매 한도를 아예 100만원으로까지 확대했다. 한 사람이 최대 100만원의 상품권을 90만원에 살 수 있게 소비자 혜택을 크게 늘린 것이다. 지난해 12월에서야 기준 7% 할인 한도가 1인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었다. 이례적인 10%할인 집중 판매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지난 1월부터 3월 15일까지 74일간 할인 판매한 상품권이 461억 원 어치로 지난해 전체 할인 판매액 988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46.7%나 됐다. 또 전체 사용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258억원)보다 60%넘게 증가한 416억원을 보였다.

여기에 상품권 가맹점에서 카드나 QR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이용자에게 결제액의 5%를 되돌려주는(5% 추가할인 효과) 캐시백 행사까지 진행하면서 카드상품권 회원 가입자도 무려 2200여명이 늘었다.

이는 해남사랑상품권이 발행된 지난 2019년 4월 이래 지금까지 이를 포함한 가입 회원수가 1만6360여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판매액과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상품권 신규 가맹점도 덩달아 늘어 전년도 전체 등록 가맹점수의 43%에 이르렀다. 110개소가 새롭게 등록했다. 해남사랑상품권 집중할인이 자연스럽게 지역내 소비를 진작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이다.

해남군은 현재 해남사랑상품권을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는 경제적 혜택을 주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효과를 주는 '최상의 카드'로 보고 있다.

이 때문인지 지난 2월 131억여원의 군비로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원한 민생경제회복지원금에 이어 이달 말 지원예정인 농어민 공익수당 88억원도 해남사랑상품권으로만 지급할 계획이다.

해남사랑상품권이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며 빛을 발하고 있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논설실장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치부 370-7010 경제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편집부 370-7082 사신부 370-7050	논설실 370-7060 비디오팀부 370-7222 임원실 370-7000 총무국 370-7093 사업국 370-7090 광고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